



말털이슬 / *Circaea quadrisulcata* (Maxim.) Franch. & Sav.

구분	설명
생물분류	식물
속국명	털이슬속
과국명	바늘꽃과

<p>과명</p>	<p>Onagraceae</p>
<p>일반특징</p>	<p>                     요약설명 : 바늘꽃과 여러해살이풀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분포한다.                      분포지역 :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분포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크기 : 높이가 30-40cm 정도로 자란다.                      꽃색 : 붉은색, 백색                      개화기 : 8월, 7월                      앞은 마주나기하고 좁은 달걀 모양 또는 달걀 같은 긴 타원모양이다. 끝이 뾰족하며 밑부분이 둥글거나 얇은 심장 모양 또는 뾰족한 모양이다.                      가장자리에 희미한 톱니와 잔털이 있으며, 잎자루는 잎몸보다 짧고 거의 털이 없다. 겉면은 맥이 뻗어 있는 줄기에 털이 조금 있고 뒷면은 털이 없다.                      꽃은 7~8월에 홍백색으로 피고 줄기와 가지 끝에서 총상꽃차례로 달린다.                      꽃차례는 꽃이 핀 다음 길게 자라며 분비샘이 발달한 짧은 털이 있고 꽃받침조각, 꽃잎 및 수술은 각각 2개이다. 꽃받침조각은 달걀 모양이며 자홍색이다. 꽃잎은 거꿀달걀모양이고 2개로 갈라지며 홍백색이다. 길이는 꽃받침의 2/3정도이다. 수술은 2개이고 씨방은 2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열매는 두꺼운 껍질에 싸여 있는 견과처럼 생겼으며 넓은 거꿀 달걀 모양이다. 세로로 4개의 홈이 파여 있고 갈고리 같은 털이 있다. 열매의 대는 열매와 길이가 같거나 1.5배 정도 길다. 8~9월이 되면 익는다.                      줄기는 곧게 서고 털이 없으며 높이는 30~40cm에 이른다. 가는 땅속줄기가 옆으로 뻗는다.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한 남쪽 지역의 산지나 약간 그늘진 곳에서 자란다. 세계에 약 12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4종이 분포한다.                 </p>